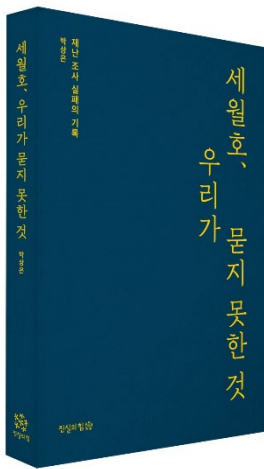


새책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 재난조사 실패의 기록>



“참사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일 사참위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조위는 강제 해산되고,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내인설과 외력설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참위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마저 꺾였습니다. 2014년 참사 이후 8년간 이어진 세월호 재난 조사는 이렇게 '실패'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도대체 왜, 8년간 3개의 조사위원회가 활동했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참사의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참사의 책임을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세월호의 진실은 밝히지 못한 것일까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책입니다.

특조위에선 조사관으로, 선조위와 사참위에선 종합보고서 외부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저자 박상은은 <특조위>와 <선조위>의 탄생 배경, 인력 구성과 배치,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 결론을 내는 과정과 수용 태도 등에 대해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재난 조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지나치게 사법적 처벌에 천착한 재난 조사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재난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법적 원인 규명과 함께 구조적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난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에만 집중하면서, 구조적 원인 규명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 책에선 선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내인설과 외력설 모두를 인정한 이유도 추적합니다. 선체 내부의 위험과 외부 충돌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가설을 모두 인정해서, 사회의 혼란과 갈등만 가중됐는데요, 선조위는 왜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304분의 안타까운 영혼이 스러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그 열망을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김정은(출판팀장)

어디서 쓰는 물건일까요?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보호대〉



〈전신고정형 보호의자〉

이 장비들은 어느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중환자실? 정신과병동? 체육관? 아닙니다.

이 장비들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에 포함된 보호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사용하려고 도입하려는 새로운 장비입니다.

불법이라고? 규칙을 바꿔서 합법으로 만들어!

지난 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모로코인 A씨는 독방에서 새우깍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법무부에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별계호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소장에게는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그 사건의 후속조치로 올해 5월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새로 밝힌 개정안에 포함된 보호장비들입니다. 규칙에 없는 장비를 이용해 '고문'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법무부가 아예 갖가지 장비 사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보호장비 중 '발목 수갑'은 노예제가 연상되는 장비로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온 장비입니다. 구금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원칙,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UN 피구금자 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상에서도 꼭 짚어 금지하는 장비입니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먼저 채운 다음 손목의 수갑을 벨트에 고정하는 것으로 두 팔을 몸통에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장비 역시 오래전 교도소에서 인권침해의 온상이 된다는 이유로 악명이 높아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 사용 금지를 권고한바 있으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기간이 지났거나, 국내법 등을 위반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머무는 임시 '보호시설'을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예나 범죄자에게 오래전에 사용하다 사라진지 꽤 오래된 장비들을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모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하던 장비인 포승을 폐지하고 여러 장비들을 늘렸으나 법률적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규칙의 상위법은 출입국관리법입니다. 보호장비의 종류와 그 요건의 핵심사항은 최소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위 시행 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위법인 규칙 개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보호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모순입니다.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는 포승이 여전히 보호장비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무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위법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포승을 삭제하는 대신 무시무시한 장비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법체계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소는 감옥이 아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나가는 문 중 하나입니다. 국제공항이 정문이라면 외국인 보호소는 옆문이나 쪽문쯤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입니다. 인정률은 1%로 미비하지만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1994년 이후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등의 이유를 피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불어 커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기간동안 보호하는 장소로서의 외국인보호소를 중죄를 저지른 죄인을 가둬두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호소에서는 한국에서 체류하다 피치 못할 이유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귀국 할 때까지 잘 보호해야 합니다. 오래전 죄수들에게 쓰던 흉악한 장비로 '보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한 없는 구금

외국인보호소는 현재 무기한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규정 기한이 없는 것 입니다. 실제 4-5년 갇혔던 사람도 있고 1년 이상 갇혀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없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기약없이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번째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 입니다.

지원사업은 진행중



난민조력 시민모임의 <난민 네트워크 형성 및 액티비즘을 위한 참여실행연구>는 시민권이 없어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난민이 스스로 프로젝트 활동의 기획자가 되어 사회참여활동을 추진해보고, 난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난민은 어느 사회에서나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 인식되기 마련이고, 비호국에서 체류와 보호를 '요청'하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응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간접적 압력에 놓여 있다. 언어장벽, 정보부족 등의 이유가 더해져 난민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나마 한국인 활동가/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그 목소리가 대변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실을 짚어보며, 난민은 과연 정치적 주체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수년 전부터 난민들의 단식농성, 돛자리 시위 등의 생겨나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난민이 한 사회의 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연결되어, 생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가능성을 말해보고 싶었다. 박탈된 권리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라 각오하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 이 여정 끝에 작은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며...

우리 팀은 좀더 많은 난민들이 누구나 프로젝트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난민 활동가 공개모집으로 참여자를 모았고, 한국인 활동가 3명과 더불어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온 4명의 난민 활동가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난민활동가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직접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난민학습활동그룹의 형성과 액티비즘 시도, 난민 간 네트워킹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계획과 목적은 있었지만, 무엇을 채우고 담을지는 난민 멤버들이 토의과정을 거쳐서 설계하고 추진해볼 것이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대로, 초기에는 생각과 배경이 서로 다른 멤버들이 처음 만나, 공동의 방향과 의제를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도출해 내는데 상당한

양의 시간을 보냈고 지치기도 했다. 긴 논의 끝에 3월에 시작한 첫번째 활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난민 커뮤니티 리더나 난민활동가들을 만나는 작업이었다. 막상 하나의 활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현실적 요소와 판단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자고 제안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다들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늦어도 우리가 누구인지 확립하고, 우리 먼저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순서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대외활동보다는 팀 멤버들의 자력화(Empowerment) 활동에 보다 집중하여 4월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언제나 한국인 활동가/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져 온 난민 관련 제도의 흐름과 주요 현안들을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치열하게 질문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팀워크와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전쟁 없는 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 "적극적 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워크숍을 마련하여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해 배웠다. 그러던 중 우리만의 그룹 이름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2월부터 몇몇 난민멤버들에 의해 제안되었던 아이디어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르다 느껴졌지만 멤버들은 우리만의 그룹명과, 프로필을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소속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돌이켜 보면 누군가에겐 늘상 어디든지 발들여 놓을 수 있는 조직이나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난민들에게는 어쩌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내 뜻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 그룹은 이후 커다란 두 가지 행사를 치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Active Refugee Korea(ARK, 행동하는 난민)은 그렇게 소소하지만 소중하게 만들어졌다.

회의를 하던 어느 날, 한 난민 멤버가 새 정부가 들어서니, 우리도 청와대 앞에 가서 당선을 축하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던져 보자고 하였다. 이어 난민/이주민 권리에 관심 없는 새정부를 왜 축하하느냐, 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몇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축하와 우리의 희망사항을 동시에 담은 편지를 함께 작성하기로 하였다. 난민연대를 상징하는 난민국기 아이디어가 덧붙여져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난민국기를 흔드는 독특한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다.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이거나 인수위로부터 답장도 받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아서 우리 팀의 첫 액션은 '누가 뭐래도' 대성공이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처음으로 뭉쳐서 만들어 냈던, 오랜지색 깃발 가득한 그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실 틈도 잠시, 세계난민의 날이 다가왔고, 한번 팀워크를 맞춰본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에도 각자 그리는 그림은 달랐지만 좀더 재빠르게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관점을 다듬고 조합하여, '난민 권리선언 축제'라는 컨셉을 그려보았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즐겁고 신나게 '권리'를 선언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기획안에 공감하며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단체로 함께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문화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행사가 되었다. 10개 정도의 난민지원단체 및 난민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부스행사까지 기획되었고,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인권재단사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 이후 몇 년만에 열리는 야외 문화제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뜻깊게 치러낼 수 있었다. 난민 활동가가 행사를 진행을 맡고 난민 참여자/커뮤니티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어느새 상반기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시행착오와 한계점 그래서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또한 많은 것들이 처음이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뜨겁게, 치열하게 고민하며 함께 했던 것 같다. 시행착오를 돌아보며 하반기에는 난민활동가들이 좀더 독립적인 활동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지원과 역량강화활동을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 보려 한다. 진실의 힘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7명이 애초에 모이지도, 행동하는 난민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직적, 재정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우리 팀에 버팀목이 되어 주신 진실의 힘 관계자분들에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강은숙(행동하는 난민 활동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인권지원사업 중간 보고회

진실의 힘은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진실의 힘이 지원하는 네 그룹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강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진상규명운동 :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한종선

7월 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인 한종선씨의 강연 '형제복지원 피해실태와 진상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 자원활동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청하세요

<특강> 이병남과 무릎 맞대며,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

때. 2022년 8월 24일(수요일) 오후 6시30분

장소. (재)진실의 힘 사무실



진실의 힘 첫 걸음 때부터 지금껏 후원하고 있는 이병남 선생이

일하는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돕기 위한 응급 처방전 같은 책을 냈습니다.

‘경영은 사람’이라는 철학으로 엘지(LG)에서 21년 동안 인사와 교육을 도맡아온 이병남님은

그동안 일하며 깨달은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회사에서 안녕하십니까?>(동아시아출판사)

오늘도 회사에서 안녕하기를 꿈꾸며 출근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은 더 경쾌해지길 바라며

덕수궁 옆 진실의 힘 사무실에서 무릎 맞대는 작은 모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하며 성장하는 개인, 조직과 사람의 발전이 지속가능하기를 바라는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